

상의, China RoHS 대응 순회설명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자원부가 중국 현지기업들의 전자제품 환경규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상의와 산자부는 3월1일부터 중국에서 시행되는 전자정보제품오염관리방지법(China RoHS)에 대한 현지 진출기업의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현지 지역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자정보제품오염관리방지법(China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은 1400여종에 달하는 전자정보제품(부품 포함)의 환경성 및 유해성을 규제하는 포괄적 규정으로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제한, 표시의무, 중점관리품목(2007년 하반기 발표 예정)의 중국강제인증(CCC) 획득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수출기업 및 현지기업들에게 원가 상승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명회는 1월29일부터 31일까지 전자산업 진출기업이 많은 천진, 청도, 심천 등에서 개최되며 China RoHS에 대한 상세정보와 함께 해당분야 전문가의 상담도 곁들여진다.

순회 설명회가 개최되는 천진지역은 휴대폰 생산량이 6300만대를 초과하는 중국 최대의 대폰 수출기지의 하나이며, 청도는 2005년 말까지 국내기업의 투자가 8500여건, 86억달러에 달하고 전체 중국 투자기업의 22%, 투자액의 27%를 차지하는 동 진출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심천 또한 전자정보산업 생산액이 전국의 1/6 이상을 담당할 만큼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전자정보제품 제조 및 수출기지이다.

순회 설명회에서 삼성전자 북경법인은 현지진출 대기업이 대응하기 위한 <협력기업 관리방안>에 대해, 현지진출 중견기업인 천진한성엘컴텍광전자유한공사는 <환경경영 방침 및 유해물질 대체를 위한 제조공정 개선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순회 설명회로 현지 진출기업의 China RoHS 인지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학저널 2007/01/29>